

# 한국어와나, 남부지역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 남부지역 선교사, 박광동

어와나 클럽교회와 동역자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 어와나를 믿음의 다음세대 훈련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국 어와나는 사역의 효과와 성장을 위해 지역을 분할하고 각 지역의 대표를 세워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부 지역은 본부와의 거리적인 문제로 인해 선교사의 교회방문, 교육, 교제등 많은 사역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고민 끝에 남부지역 선교사의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기게 되었고, 자택 안에 공간을 구별하여 어와나 지부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어와나의 시작도 계단아래 작은 책상과 타자기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한 청년의 불타는 열정으로 오늘에 이른 것처럼, 남부지역 사무실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껏 한국 어와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남부지역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사무실이 이들의 무릎과 수고를 한 곳으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사역의 시너지를 내는 활화산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 합니다.

부족한 중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Greetings to all of Awana clubs and donors.

Awana Korea has 3 missionaries who are charged to 3 different regions(Seoul/Gangwon/Jeju, Gyeonggi/Incheon and Southern area).

We had a lot of difficulty on mission to Southern area cause of distance. especially education of missionary's kids, visiting clubs and relationship with leaders.

I and my family moved to Daejeon, and simultaneously Awana office Southern area branch is opened in Daejeon this month.

I make a distinction one of room to office in house.

We've heard that Awana was started small desk and typewriter just below of stair, which have been grown up as this moment with one young man's unextinguished passion.

Southern branch try to model himself after him. And we pray and hope the providence of Heaven to Awana Korea and especially Awana Korea Southern area branch.

We pray that Awana Korea Sourthern area will be a pivotal place of great mission with pray and work.

Please pray for our family and mission and we ask co-work for Awana mission!

**Timothy & Mi-Ok Park, Awana Missionary**

한국어와나 남부지역 사무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37번지 구봉마을 512동 405호

512-405 GooBong maul Apt. 1137 GuanJeo-Dong Seo-Gu DaeJeon Korea

Tel: 070-8692-4570

Fax: 042-367-6537

